



애의 업계 소식

비아, 애슬론4.듀론 지원 칩셋 출시

대만 칩셋 업체인 비아테크놀로지스는 AMD의 저전력 노트북 PC용 CPU '애슬론4'와 '듀론'을 지원하는 칩셋 '비아 프로세비지 KN133'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비아 측은 이 제품이 세어드 메모리 아키텍처(SMA)에 기반하면서 S3사의 2D·3D 그래픽 코어를 자사의 기존 노스 브릿지 칩셋인 'KT133A'에 집적한 통합형 칩셋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버스 속도는 '애슬론4' 규격에 맞춰 200/266MHz이며, PC100/133MHz SD램을 지원한다.

[도바이]일본 PDA 시장, 2005년에 2700만대 초과 전망

일본사무기계공업회는 지난 5월8일 2005년의 휴대 정보단말기(PDA) 국내 시장은 3천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사무기계공업회는 2005년의 출하대수는 지난 99년의 41.7배가 많은 2천713만대, 매출액 규모로는 지난 99년보다 10.2배가 많은 7741억엔으로 각각 전망했다.

또 PDA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은 99년보다 4.6배가 많은 7조 5118억엔으로 전망한다고 일본사무기계공업회는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제이텔과 M플러스택 등 몇몇 기업이 팜과 핸드스프링, 컴팩, 휴렛패커드 등 미국 업체들과 급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PDA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만 "디지털방송" 유럽식 선회가능성

대만이 지상파 디지털방송방식을 미국식의 'ATSC'에서 유럽식의 'DVB-T'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TV학회 주관으로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실시한 미국식과 유럽식의 비교테스트 결과, 유럽식이 실내 및 이동수신에서 우수한 것으로 확인돼, 비교테스트실시단이 최근 대만당국에 유럽식을 채택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부는 비교테스트 보고서를 검토한 후 6월 중 방송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대만 방송계는 정부가 비교테스트 결과를 인정하고 방송방식을 유럽식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방식을 둘러싼 대만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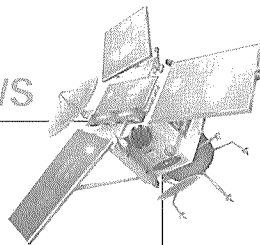
같은 움직임은 양 방식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비교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내년에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도입할 예정인 대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식의 수신율 불량과 이동수신 서비스 불능으로 인해 방송사들의 끊임없는 재검토 요구에 직면해왔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지난해 양 방식간의 비교테스트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실험에서 미국식은 실외 수신에서는 유럽식과 큰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실내수신과 이동수신에서는 열등한 결과를 보였다. 대만 방송계 인사들에 따르면 실내수신에서 DVB는 COFDM 변조기술로 인해 미국식 ATSC의 8-VSB방식보다 수신율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LOS(Line of Sight, 장애물 없는 가시거리) 수신시 DVB는 더 탁월한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수신에 대해서는 더욱 현격한 차이가 확인됐다. ATSC는 이동 수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반면, DVB는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직교진폭 변조방식) 변조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어 이동시 전계강도를 유지시켜 이동수신이 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교테스트실시단은



디지털TV 지상파방송 전송표준으로 유럽식의 DVB-T COFDM을 택해야 한다고 결론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만이 유럽식으로 방송방식을 변경할 경우 미국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캐나다(비교테스트 진행중)와 더불어 더욱 더 고립된 방송방식을 가진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국내 비교테스트 준비상황은 방송위의 예산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테스트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테스트 감독을 약속했던 정통부가 갑자기 이동수신과 계층변조(6Mhz상에서 COFDM변조로 HD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실험을 허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기술인들은 이같은 정통부의 태도변화에 대해 “테스트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이동수신실험은 테스트의 핵심이자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 휴대폰에 선불카드 기능 도입 추진

일본정부는 정보통신업체와 공동으로 휴대폰에 선불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기능이 부가될 경우 휴대폰 사용자들은 편의점 등에서 현금정보가 기록된 성냥갑 모양의 칩을 구입해 휴대폰에 넣음으로써 허용된 금액 한도내에서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음악, 게임 등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이번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총무성은 6월내에 NTT 도코모, 소니, KDDI, 샤프 등 정보통신관련 기업 20여개사와 공동으로 협의를 시작, 올가을 시범을 거친뒤 내년에는 실용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용화 단계에서는 음악이나 게임 등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가 선불카드 칩을 발행해 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할 전망이며 가격은 수천엔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쓰시타-히타치, 가전사업 제휴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과 히타치제작소가 가전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냉장고 등 성숙제품의 상호 위탁생산, 차세대주력 상품인 디지털가전의 공동개발, 부품 조달 등 가전 분야에

서 포괄 제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포괄 제휴는 생산 분담으로 성숙 산업인 백색가전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수익 사업으로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공동개발 및 투자로 디지털가전의 경쟁력도 확보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제휴는 백색가전에서 AV기기까지 사업 영역이 넓은 마쓰시타와 AV가 취약한 히타치간의 제품 중복이 적어 상호 보완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회사는 5월 말 가전 분야에서 포괄 제휴 합의를 공식 발표한 뒤 곧바로 구체 협의에 착수해 협력에 들어갈 예정인데, 먼저 냉장고·세탁기 등 백색가전의 상호 위탁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탁생산과 관련하여 양사는 제품별 시장점유율이나 생산능력을 비교해 거점을 집약한다. 수익성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의 일원화, 사업 통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백색가전에서 세탁기의 경우 마쓰시타와 히타치는 모두 자국내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이고, 냉장고는 마쓰시타가 1위, 히타치가 4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성숙으로 양사 모두 국내 거점의 생산 효율화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마쓰시타는 20개 공장, 히타치는 6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애외 업계 소식

또 양사는 디지털TV 등 가전과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디지털 가전의 연구개발에서도 전용 반도체의 설계, 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공동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연구개발에는 제품별로 1000억엔 정도의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요구되는데, 양사는 이 비용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이밖에도 두 회사는 리사이클 설계, 환경보전 기술 등도 공동 연구하는 한편 부품의 공동 구입을 통해 제조비용도 삭감할 전망이다.

마쓰시타는 3월 마감한 2000 사업연도 매출이 7조6800억엔에 달했으며 이중 주력인 가전은 약 3조엔을 기록했다. 그러나 컬러TV, 에어컨 등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져 수익력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히타치는 2000 사업연도 매출액 8조4100억엔 중 가전이 9200억엔을 차지하는데 백색가전이 중심이고 AV기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망 분야인 디지털가전에서 열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세대 이동 기술표준 cdma2000 1x채택

최근 중국 2위 이동통신 업체인 차이나유니콤이 CDMA 기술

을 채택한 데 이어 미국의 벅스텔커뮤니케이션도 그 동안 사용하던 유럽 GSM 계열의 WCDMA 기술을 포기하고, 퀄컴이 제안한 cdma2000 1x를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기술표준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우존스와 텔레포니 등 외신에 따르면 이 회사 재무책임자(CFO)는 지난 5월 15일뱅크오브아메리카가 뉴욕에서 개최한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현재 방송국 및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700MHz대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감안, 주파수 활용효율이 뛰어난 cdma2000 1x 기술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美, 새 초고속 컴퓨터 개발

슈퍼컴퓨터로도 수백년 걸릴 연산을 불과 단 몇 초 만에 풀어내 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양자컴퓨터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의 과학자들이 양자기계(하드웨어)에 레이저 기술을 접목해 완전히 새로운 초고속 컴퓨터를 개발했다.

로체스터대학에 근무하는 일단의 교수들은 순차적으로 연산을 처리하는 현재의 컴퓨터 칩

과 달리 동시에 수없이 많은 컴퓨터 연산을 처리할수 있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개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새로운 고속 컴퓨터를 선보였다.

새 고속컴퓨터는 프로세서 연산에 전자 대신 빛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CNN은 새 시스템이 현존의 슈퍼컴퓨터를 고물로 만들 만큼 빠르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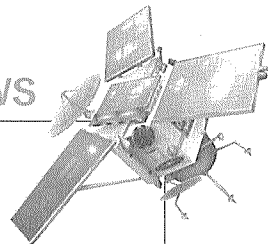
이번 연구를 이끈 로체스터대학의 아이언 워슬리 광학 교수는 “빛은 양자시스템보다 훨씬 통제하기 쉽다”고 설명하며 “만약 양자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는 빛을 이용해 이를 훨씬 빠르고 뛰어난 컴퓨터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체스터 연구진들은 현재 미 국방부의 자금을 받아 연구하고 있는데 새 시스템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레이저콘퍼런스에서 발표했다.

온·오프라인 부문 통합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브리태니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부문을 통합기로 했다.

이 회사는 2년 가까운 기간을 고전하면서 자금난을 겪어온 ‘브리태니카닷컴’을 ‘인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태니카’와 통합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는 유지하는 등 이들 두 부문은 당분간 별도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인 통합을 통해 인터넷 이외의 CD롬, DVD, 인쇄매체 등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회사 대변인은 “이번 통합은 보다 많은 수익모델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9년 출범한 브리태니카닷컴은 광고를 통한 수익을 기대했으나 닷컴기업들의 몰락과 함께 사업내용이 흔들리면서 지난해에는 미국내 종업원의 절반이 넘는 150명을 줄였다.

어플라이드 2분기 순익 52% 감소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의 2·4분기 순이익이 52% 감소했다.

4월 29일 마감한 2분기 동안 어플라이드의 순이익은 전분기 4억6890만달러(주당 54센트)보다 52% 감소한 2억2670만달러(주당 27센트)를 기록했으며 매출은 21억 9000만달러에서 19억 1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일회성 항목을 제외할 경우 어플라이드의 수익은 전분기 4억5900만달러(주당 53센트)에서 2억6900만달러(주당 32센트)로

41% 감소했다.

이 회사의 CEO 겸 회장인 제임스 모건은 “우리는 2·4분기 동안 혹독한 경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의 수요 감소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자본재 장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적 발표에 앞서 월스트리트의 톰슨파이낸셜/퍼스트콜은 어플라이드의 주당 수익이 28센트에서 27센트로 평균 33센트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실적 발표로 나스닥에서 49달러 89센트에 마감된 어플라이드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51달러까지 올랐다.

의료시스템 개발·판매 제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일본 후지쓰가 의료 분야에서 업무 제휴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GE의 영상진단장치 등 의료기기와 후지쓰의 정보기술(IT)을 결합, 인터넷을 활용해 병원간 의료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스템 등을 공동개발할 계획이다. 또 판매분야에서도 협력, 우선은 일본시장을 개척하고 유럽과 미국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GE는 의료 분야에서 요코가와전기와의 합작사인 GE요코가와메디컬시스템을 통해 일본시장에 기기를 판매해 왔다.

GE요코가와사는 3월 마감한 2000회계연도에 1178억엔의 매출을 올려 도시바에 이어 업계 2위를 차지했다.

팜, 아태 PDA시장 공략 강화

세계 최대 개인휴대단말기 업체인 미국 팜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등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니저인 포화는 “잠재력이 엄청난 인도시장을 겨냥해 4종류의 제품을 내놓게 됐다”고 밝히며 “지사 설립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급성장하고 있는 아태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음 지역으로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